

제 2 회 대한민국 성균한글백일장

접수번호: 2022-KRS0458

한글 성명: 응우옌 퀸뉴

'젊음에 제한이 있는 것인가?'
나를 보고 많이들 그렇게 말했다. '젊어서 정말 좋다', '젊으면 뭐해도 될 것 같다'. 그런데 나도 내가 진짜 젊은가, 그리고 젊음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많다. '젊음이란 나이만 말하는 건가'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어떤 젠가 내가 젊음을 알을 수 있지 않을까 왜지 불안해진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내가 계속 생각해왔다. 친구 말로는 나는 젊음과 나 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스스로 자기에게 나이에 대한 불안감과 암박감을 가지는 것 같다. 한국에 유학온 것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2018년도에 베트남에서 대학교 이미 1년 다닌 상태라 갑자기 한국에 가면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 난다. 그때 정말 별의 별 상황을 생각해 봤다. 다시

제 2 회 대한민국 성균한글백일장

접수번호: 2021-KRS0458

한글 성명: 응우옌 퀸뉴

시작하면 나보다 어린 친구들과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조별 과제에서 민폐 기치면 어려울 게 해야지 등이 떠올랐다. 아마 이는 우리 사회에 나이와 점은 것에 대한 인식 때문인 듯하다. 늦게 시작하면 눈치 보이고, 남보다 불리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것은 역시 사회의 편견과 시작으로 인해 나타난 슬픈 현실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젊음에 대한 조바심이 있다. 특히 나와 같은 시발점에서 시작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 따라잡아야 할 것 같고, 뒤떨어지면 안 된다고 느낀다. 대학 늦게 시작해서 내 옛날 동기들이 다 졸업했고, 취직한 사람도 있어 그것 을 보고 내가 슬퍼질 수 밖에 없었다. 근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제 2 회 대한민국 성균한글백일장

접수번호: 2021-KRS0458

한글 성명: 응우옌퀴뉴

아니기에 더욱 담담했다.
그러나 저번 학기 수강한 수업 중
나에서 교수님의 한마디 덕분에 나는
많이 위로 받았고 지금까지도 잊지 못
한다. 그때는 종강하기 전 마지막 수업
인데, 수업 수강생이 다 외국인 유학생
이라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이면 나라까지 유학오게 되는 것
체가 정말 훌륭한 일이었다. 인생이 때
로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다 괜찮다.
그리고 무엇을 시작하기에 늘은 것이
없고, 젊은이 여러분이 괜히로 바심내
지 말고 각자 속도에 맞게 걷다 보면
길이 멀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날
이후 내가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왜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춰야 하는가,
인생이 시험처럼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거친 과정이 중요하다. 조금 늦
더라도 삶의 다른 지점에서 속도내고

제 2 회 대한민국 성균한글백일장

접수번호: 2021-KRS0458

한글 성명: 응우옌 퀸뉴

빨리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바로 삶의 방향이고 옳고 그름이 업기 때문에 자기가 만족하면 된다.

그래서 '나이 기 많아서' 어려한 말이 평계가 되지 않도록 나는 다짐했다. 젊음의 유일한 제한은 내 자신의 생각뿐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일에 늦은 것이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도전할 자신이 있다면 될 것이다.

이 시대의 젊은이로서 마음뿐 아니라 자신과 건강을 단단하게 키우고 나 자신에게 제한이 되지 않게 노력할 것이다. 내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좋지 판 그것에 목마지 않고 내 자기의 평가 기준 되지 않은 것도 중요하다. 젊음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용기 내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모든 젊은이들이 자기 삶을 맘껏 즐길 수 있었으면 한다.